

#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대책



이동현 관세청 차장



최근 한-중 FTA 가서명(15.2.25.) 및 한-베트남 FTA 가서명(15.3.28.)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1개 협정, 49개국과 FTA협정을 체결하여 FTA 교역비중이 41%에 달함으로써 FTA가 명실공히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역비중이 21.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미국, EU 등 다른 어떠한 FTA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는 TPP, RCEP 등 Mega-FTA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새로운 FTA가 발효될 때마다 신규 시장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발굴·보급,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인증수출자<sup>1)</sup> 조기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국내 유일한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FTA 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고 증명절차가 복잡하여 자금·인력·정보가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출 대기업의 경우 FTA 활용률이 81%에 달하지만, 수출 중소기업은 59%에 그치고 있다.

특히, 對中 수출기업의 77%인 25,000개 기업이 FTA 활용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FTA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한-중 FTA 대비 영세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 세관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01 FTA 기업지원 전담기관 설치

관세청은 지난 1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서울·인천·부산에 기업지원 전담 조직인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신설하였다. 관세행정이 단속 중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동 센터에서는 기업상담 전문관(AM)이 FTA 컨설팅, 교육·고용지원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뿐만 아니라 AEO, 해외통관애로 등 수출입 통관 관련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와 관련한 전문상담 등 각종 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중 FTA Double-100일 특별지원대책」<sup>2)</sup>을 발표하고, 전국 30개 지역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원산지관리 및 증명, 해외통관, 사후검증 대응 등 기업들이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을 일선세관의 FTA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 컨설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2) Double-100일 특별지원 : (1단계)가 서명직후 100일, (2단계) 발효전 100일

3) 비영리의 공익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사



지난 3월부터는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회와 협업으로 공익관세사<sup>3)</sup>를 YES FTA 차이나센터에 본격 배치하였다.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이 연결되어 배치되며,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익관세사는 기업상담전문관과 팀을 이루어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차량 내에 독립적인 상담 공간 및 교육·홍보 공간을 구비한 동 이동센터는 현장중심의 FTA 관세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치·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동 이동센터를 통해 FTA 활용이 어려운 영세기업, 농수축산물 수출기업 등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FTA 준비부터 활용·검증 대응·통관애로해소까지 종합 지원하고, 수출입물류업체, 예비수출기업, 학생,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FTA활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하여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 02 기업별 맞춤형 YES FTA 컨설팅 사업

관세청은 3월부터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5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관리 하에 FTA 전문교육을 이수한 FTA 전문컨설턴트(관세사)가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2011년 최초 컨설팅을 개시한 이래 총 2,287개<sup>4)</sup> 업체를 지원하였다. 그간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구축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산지 관리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결과, 전년도에는 574개 참여기업 중 570개 업체(99%)가 컨설팅 이후 즉시 FTA를 활용하고, 그 중 180개 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는 등 컨설팅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도 지난해 컨설팅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아직까지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에 대비하여 對中 수출기업도 상시 발굴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사후 검증대응 컨설팅' 및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컨설팅 유형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 FTA-PASS 구축·운영,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지정 등
B형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기록보관 및 검증대응 절차 등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 품목분류, 사전확인 증빙서류 구비 및 신청 등

4) ('11년) 734개 → ('12년) 477개 → ('13년) 502개 → ('14년) 574개

## 03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창출 지원

FTA를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FTA를 활용하는 주체인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활용 데이터와 품목분류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관세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YES FTA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기업실무자·특성화고생·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FTA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FTA·원산지 전문 자격제도인 원산지관리사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총 2,170명의 FTA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특성화고 교원을 대상으로 FTA·원산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특성화고에 FTA 정규과목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특성화고·전문대생의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형 원산지관리사 자격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지자체·민간과 함께하는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FTA 전문교육 이수자와 중소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작년에 299명을 취업시키는 등 지방의 FTA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사 등 FTA 전문인력과 중소기업 간에 구인·구직 정보교환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온라인 고용매칭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나아가 FTA·원산지 관리업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sup>5)</sup>에 편입시켜, FTA 전문인력양성이 NCS 기반 하에서 '교육→자격증 취득→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5)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 활용영역 : (기업) 경력개발경로, 직무기술서,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트, (교육) 훈련과정, 기준, 모듈교재 개발, (자격증) 종목설계, 출제기준 등

## 04 중소기업 100대 수출 물품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보급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100대 주요 수출물품을 선정하고, 이들 제품의 원산지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sup>6)</sup>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해 보급하였다.

그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시 곤란을 겪는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FTA-PASS를 무료로 개발·보급한 바 있고, 현재 약 11,850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100대 물품의 원산지재료를 표준화해 FTA-PASS 기능을 획기적으로 확대·개선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고, 한-중 FTA 발효까지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거래처, 품목분류(HS) 코드, 물품내역 및 자재명세서 등 기초자료를 먼저 입력해야 하나, 이 시스템에서는 최종상품만 선택하면 물품내역, 품목분류 코드 및 자재명세서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 FTA-PASS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ftap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FTA-PASS를 확대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05 농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원산지 증명 간소화

관세청은 3월부터 우리 농산물의 FTA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가 별도의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매매증빙서류 등 3~5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절차도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간소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sup>7)</sup>', '농산물우수 관리 인증서<sup>8)</sup>'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FTA 원산지확인절차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생산농가 등 181,674개의 우리농가가 직접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경쟁력 있는 우리농산물의 FTA 활용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농어민이 농축수산물의 FTA 활용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 농수산물가공식품(7), 화학산업(14), 플라스틱·고무(15), 섬유·의류(24), 철강·공구(12), 기계류(18), 광학·잡품(10) 등 7대산업 100대 품목

7) 농산물의 생산~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 기록·관리 여부 심사통과 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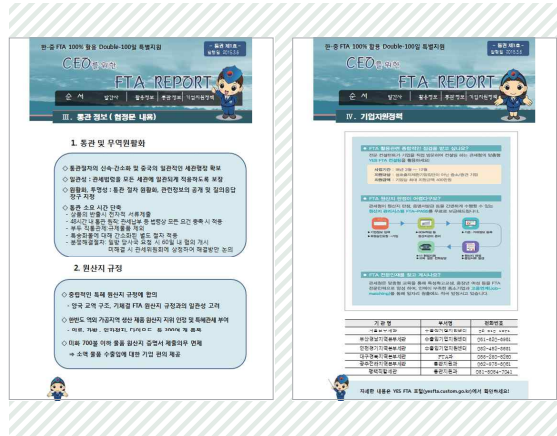
8) 농산물의 생산·수확·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경지 등의 농업환경과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적정 관리하는 업체에게 주는 인증서

# 06 FTA 활용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서는 관세율, 품목분류, 원산지규정 등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CEO의 관심도 제고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관세청은 FTA 종합정보 사이트인 YES FTA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 한-중 FTA에 대비하여 對中 관세특화 정보를 제공하는 「차이나 Info」를 개설하였다. 여기에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 기본정보와 중국 산업별·지역별 수출활용 상세정보, 한-중 비즈니스모델 제공 및 「한-중 FTA 100문 100답」 사례집을 제공한다. 또한,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공익관세사가 직접 상담하는 온라인 창구도 있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125 관세청 콜센터 내에 한-중 FTA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對中 수출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중 FTA 이해증진 및 활용의지 고취를 위한 홍보소식지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나아가, 전체 미활용기업을 대상으로 발효 중인 11개 협정 전체에 대해 상대국의 FTA 특혜세율을 명시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여 FTA 활용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및 기업지원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FTA 활용이 '선택'이 아닌 '생존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정보·자금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품목분류, 사후검증 대비 등 실무단계에서의 FTA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